미래 먹거리 '식용곤충 산업' 육성 의지 있나

제주TP·제주시 지방비 2억5000만원 투입에 그쳐
국비 10억원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응모조차 않아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대안으로 식용곤충 산업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7종을 식용곤충으로 등재한 가운데 1억원을 밑돌았던 국내 식용곤충 시장규모는 2018년 430억원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와 제주시가 곤충산업을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키로 하고 지방비를 투입해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국비지원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TP는 지난해 제주곤충산업협회 회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곤충사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TP와 협의체는 제주 식용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사육예산 절감을 위한 식용곤충 먹이 발굴 공동연구, 사육곤충에 대한 효능 검증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 식용곤충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곤충산업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해 제주지역 곤충사육 환경에 접목하는 등 제주 식용곤충을 활용한 산업화 제품 소재개발 및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제주도산 곤충 활용 식품제형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곤충 가공시설과 유통판로 확대기반 마련을 통한 6차산업화 모색을 위해 2개 보조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현재 도내 곤충사육 농가는 43개이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곤충은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귀뚜라미, 지네 등이다.

식용곤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모한 '2021년 곤충산업육성 공모사업'에는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산업육성 공모사업은 곤충산업화지원 2개소, 곤충유통사업지원 3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화를 위한 곤충의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을 지원한다.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매비 등 지원,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이 지원된다.

곤충산업화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장수, 경상북도가 선정됐으며,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은 경남 산청군, 충북 청주시, 경상북도가 13일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는 준비를 하지 않아 이번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역별 곤충농가의 거점화·규모화가 이뤄지고 곤충제품 유통의 영세성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
12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1인 가구 기준 8만8000원, 2인 가구 기준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사, 가구원 수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읍면동 사무소 업무소홀 '수두룩'

도감사위 감사결과 28건 지적

제주지역 읍·면·동사무소의 업무처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3일 상반기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제주시지역 우도면·일도1동·일도2동·이도1동·삼도1동, 서귀포시지역 안덕면·정방동·효돈동·영천동·서홍동·중문동·예래동 등에 대한 2018년 8월1일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한 동사무소의 경우 2018년 11월 2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588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한 동사무소에서는 지역내 체육시설업 신고민원을 처리하면서 체육시설업 신고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없이 그대로 신고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총 9건의 지적사항과 5명에 대한 신분상(주의) 조치를, 서귀포시 읍면동은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4명에 대한 신분상(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태윤기자

세월을 품은 자연에서 산책 13일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산 쇄설층을 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포럼 '팬데믹과 인본안보' 주제로 열린다

내달 5~7일 롯데호텔 제주서
다자협력 구상 등 집중 논의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도 방점을 두고,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진다. 해외연사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포럼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른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서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를 이번 제주포럼의 대주제로 선정했다.

인류가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구상 방안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제주포럼에는 세계 정상급 인사와 석학, 저명인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6일 전체세션에는 1996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 회담의 주역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원희룡 지사와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팬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야 할 새로운 다자협력의 모습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날 오후 개최되는 세계지도자세션에는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강대국들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국 간의 연대와 이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공유한다.

아울러, 언론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수상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가속 시대'에 우리 인류와 국가, 그리고 제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주포럼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자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함께 '이타주의', '다자협력', '인본안보'의 키워드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인간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그 밖의 주요 인사로는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있으며, 김숙 전 UN 대사 및 현 주한 대사 다수가 11월 6일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의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제주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2020 제주포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과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제한적 운영으로 다시 개장

제주지역 국·공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이 제한적으로 재개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국·공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생태숲의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등 도내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연휴양림(휴양림 등 숙박) 등은 복합동을 제외한 단독·연립동의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의 테크는 50% 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실내·외)은 50%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또 교육·치유 등 숲체험 프로그램은 1회 20인 미만으로 운영한다. 사립시설(수목원 2, 정원 1)에 대해서도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 달 특별 할인 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